

“불황아 반갑다” 경차·소형차 패속 질주



아우디 'A3'

불황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국산·수입차 업계의 판매량이 등 반 감소하는 등 자동차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국산차의 경우 중·대형 모델의 판매 급감 속에 경차와 준중형 차량이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는 등 차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수입차 업계도 중저가의 소형차량 위주로만 판매가 이뤄지고 있을 뿐 일부 브랜드는 한 달간 단 10대도 팔지 못할 만큼 불황을 타고 있다.



벤츠 '마이비'

◇국산·수입차 판매 급감=5일 한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산차 업계의 내수판매는 7만4천753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10월에 비해 29.3%(3만 969대) 감소한 것으로, 국내 경기 둔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자동차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또 국산차의 판매 급감은 완성차업체의 생산감소로 이어져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생산량은 40만1천403대로, 10월보다 18.8% 감소했다.

수입차의 판매량도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수입차의 국내 신규등록 대수는 2천948대로, 10월보다 31.0%나 줄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1월(5천295대)에 비해선 44.3%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06년 2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수입차의 시장 질주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지난달 422대를 판매해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 1위에 올랐지만, 1년 전에 비해선 절반 가량 감소했다. 또 BMW에 이어 혼다와 메르세데스-벤츠가 각각 385대, 333대를 팔았지만, 1년 전보다 판매량이 각각 45%, 23% 줄었다.

또 미쓰비시는 '이클립스' 등 신규 차종을 투입했지만 지난달 판매량이 7대에 그쳤다. 사브도 한 달간 9대를 판매



BMW '미니'

해 전달에 비해 59%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경차, 불황 속 베스트셀러 등극=최근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차와 준중형차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차의 경우 차값과 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기아차 '모닝'은 지난달에만 6천여대가 팔려나가면서 10월(7천594대)에 이어 판매량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소나타'는 10월에 1만1천237대를 판매했으나, 지난달에는 4천500여대에 그쳐 '모닝'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내수 시장 '뽕뽕'...중·대형차 판매 급감 중형차 찾던 소비자들 준중형차로 바뀌

경차가 월별 판매량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지난 1999년 1월 당시 대우자동차의 '마티즈'가 1만918대로 1위에 오른 이후 8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모닝'은 올해부터 경차에 편입된 뒤 월별 베스트셀러 3위 내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고, 최근 국산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반떼'와 '라세티' 등 준중형 차종의 판매량도 중형차를 바짝 뒤쫓고 있다. 지난달 국내 준중형차 판매량은 1만 1천818대로, 중형차(1만2천913대)를 1



기아차 '모닝'

차량으로 팔려나가기 때문이다. ◇수입 소형차도 불황 뚫고 선전=수입차 업계도 중·대형 차량의 판매급감 속에 중저가의 소형 차량들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해 선보인 '마이비'는 지난 10월까지 697대를 팔아 지난해 1년간 판매실적(670대)을 이미 넘어섰다. 넉넉한 실내 공간이 주는 실용성이 강점이다.

또 2009년형 모델은 손을 쓰지 않고도 일자주차를 가능하게 해주는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를 채용하는 등 선택 사양을 고급화 했다.

가격은 3천690만원으로 벤츠 차량중 가장 저렴하며, ℓ 당 12.8km를 주행할 수 있다. 벤츠의 준중형급 모델인 'C200 K'도 올 들어 1천353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BMW의 프리미엄 소형차인 '미니'도

지난 10월까지 1천18대가 판매돼 전년보다 23% 가량 증가했다. 클래식하면서도 감쪽한 디자인에 강한 주행성능이 더해졌다는 평가다.

기본 모델인 '미니 쿠페'는 연비가 ℓ 당 13.7km에 달하지만 가격은 3천44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폭스바겐의 '골프'도 높은 실용성과 연비로 인기가 높다. 특히 디젤 모델인 'TDI 모델'의 경우 공인 연비가 ℓ 당 15.7km로, 동급 최강의 연비를 자랑한다. 기본모델의 가격은 3천120만원이다.

또 '골프 GTI'는 가벼운 차체에서 나오는 힘찬 주행성능으로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우디도 최근 준중형급 해치백 'A3'를 출시하며 차를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엔트리급' 시장에 뛰어 들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대구북구 북성로 39가길 10) 1062-227-9940

총상점 (광주광역시 남구) 1062-227-9970

보양음료 속취해소
관류기능보충(비트스트레스)감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국도농약은 달여보소 모두의 보양음료입니다.

시·군별 대리점 모집 경쟁사원 모집

대구광역시 북구 북성로 39가길 10 062-267-7753
상암로 99길 10 011-9413-8700

리첸 리빙 리치엔 RITCHEN

리첸 리빙 리치엔
광주직영전시장 **OPEN**

1062-227-9970